

# 21세기 국제출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논의해

제10회 국제출판학술회의 열려



제10회 국제출판학술회의에서는 21세기 출판환경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한 '제10회 국제출판학술회의'가 10월 26, 27 양일간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각국 출판학자와 출판인들이 모여 '21세기 국제출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국출판학회가 제정한 '제1회 남아안촌근출판저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일본의 출판학자며 헌법학자인 시미즈 히데오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네가지 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각 주제별 논문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 <일본의 출판 연구와 출판 교육>(우에다 야스오), <중국의 근대출판사 연구에 대한 회고와 사고>(왕건휘), <중국에서의 출판교육을 위한 강습 양성>(양릉강), <출판학 연구의 지향과제>(이종국), <출판계예의 도전상>(이두영) ▲제2주제 <21세기를 맞이한 출판>(샤오 이웬), <e-러닝과 출판비즈니스>(우에무라 야시오), <당대 중국의 출판연구>(순씨우), <인터넷출판과 전

통출판의 관계>(지에 하오), <전문화출판학과의 이론 교육 강화의 필요성>(김경일) ▲제3주제 <일본 재판제도 문제의 경과와 결론>(기요타 요시아키), <21세기의 출판과 문화>(취 다오롱), <화문출판은 구조정합과 융합시대에 진입한다>(위 옥셴), <기술주제의 변화와 출판산업단

체의 기회와 도전>(아지자 함자흐), <영상시각기호를 이용한 전자출판에 관한 연구>(윤재준), <디지털 시대 출판환경의 변화와 독서의 과제>(김재윤) ▲제4주제 <일본의 온라인 서점 현황>(호시노 와타루),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와 문화홍보>(오치아이 히로야스), <한국 번역 출판물의 현황과 과제>(김선남), <정보기술혁명시대와 동아시아의 출판협력>(김승일) 등이다.

주제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우에다 야스오 | 일본출판학회 회장** | 아직 일본에서는 대학에 출판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신문학과 내지는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에 '출판론' '출판문화론' 등의 강의가 개설돼 있다. 일본 전체에서 출판관련 강좌가 있는 대학은 31개교에 불과하고 신문과 방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대학 출판교육은 결코 충실하지 않다. 오히려 에디터 스쿨이나 저널리스트 전문학교, 아동교육 전문학교 등에서 출판편집자를 양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출판편집 강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왕건휘 | 중국편집학회 부회장** | 중국 근대출판사 연구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대형출판 위주의 연구관행 때문에 중소출판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민영출판에 비해 관영출판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 ▲자료발굴이 부족하고 한 시대의 사상문화와 학술방향을 반영한 출판물과 출판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편집전문가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많지만 전통→근대→당대로 넘어오는 거시적 흐름을 조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학술논총 같은 기념적 연구와, 전망 없이 비판만 하는 회의적 연구가 많다.

**양릉강 | 중국편집학회 부회장** | 현직 출판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국 출판계는 현재 현직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편집자를 뽑아 대학에 보내 석사과정을 이수케 하고, MBA를 전공하게 한다. 또 국외에 파견해 연구하도록 한다.

**이종국 | 혜천대 교수** | 출판학 연구의 지향과제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제안한다. ▲모든 정보는 편집기능에 의해 통제·조정될 경우에만 효용성 있는 콘텐츠로 변환·창출될 수 있다는 원리성을 출판학연구의 주요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종이, 디스크, 통신망을 통한 3대체계의 파괴적 융합 속에서 편집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론화해야 한다. ▲매체개량에 따른 기술적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콘텐츠 배열이며, 이에 대한 학제간 연구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두영 | 한국출판학회 이사** | 21세기 한국출판 유통산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IT를 활용한 유통구조의 체질강화—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 구축, 서점기능 활성화와 인터넷서점과의 벤치마킹, 물류시스템 구축 ▲거래제도 합리화—재판제도 폐지, 반품조건부 위탁제도의 보완 ▲리더십—리딩그룹의 육성, 출판유통전문인력 양성 및 정예화 ▲독자

개발—신규수요창출, 우수독자 양성, 해외시장 개척 ▲출판유통산업의 과학화—연구활동 지원강화,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등이다.

**샤오 이웬 | 중국편집학회 상무부회장** | 출판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출판종사자 가운데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소유자는 40%, 석사학위 소유자 8%, 박사 학위 소유자 0.5%로, 이를 다 합해도 50%에 이르지 않는다. 출판대열의 전면적인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자의 계속적인 교육강화와 대학편집출판학 전공 및 석사연구생 양성도 본격화해야 한다.

**우에무라 아시오 | 동경전기대학 출판국 | e-러닝**은 교재의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구성된다. 교재 변화에 참여하는 출판사의 업무 변화, 기존 편집자와 전문가 사이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e-러닝의 콘텐츠를 범인 저작물(교원의 저작권 인정)로 간주할 것인가도 문제로 남아 있다. 또 교육 수법을 갖추지 않은 교과서 출판사가 전자 텍스트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밀접한 교육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순씨우 | 《편집지우》 주편** | 1980년대 이후 중국 출판계는 크게 두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현실적인 대책연구와 기본이론 연구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독자중심의 시각, 즉 출판물의 질, 재고, 중복출판과 경영책임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편집학의 학문, 연구대상, 성격, 기본법칙, 기원 등을 천착해왔다.

**지에 하오 |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출판발행연구》 부주편** |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 출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신화사, 중앙텔레비전, 인민일보 같은 거대매스컴에서 독점하고 있고 출판사는 소외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순 정보나 상업적 내용 일색이다. 네트워크 출판은 개념이 아니다. 자문서비스와 형상선전에만 만족하지 말고 전통출판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요타 요시아키 | 출판뉴스사 사장**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23일 '재판제도 당분간 존속'을 결정했다. 그후 재판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각계의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 각종 할인제도의 도입 등 가격설정의 다양화, 재판제도의 이용양태에 관한 발행자의 자주성 확보, 서비스권의 제공 등 소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 확보, 통신판매, 직판 등 유통 경로의 다양화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설정의 다양화, 도매관계의 명확화·투명화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 옥생 |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출판참고》 잡지상 부부 주편** | 중국대륙의 출판산업 구조는 아직 조정되는 시기다. 산업의 종합적 실력과 시장 성숙 정도 제고에 따라 지역보호와 독점상태가 파괴되고 경제총량과 시장구심력이 대폭 상승되고 있다. 또한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의 화문출판에 대한 흡인력과 구심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지자 함자흐 | 말라야대학 교수** | 인터넷의 잠재력은 앞으로 작품, 출판, 판매의 구조 자체를 재편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미디어는 질적인 면에서 기존보다 우월한 문화를 창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좀더 많은 청중들을 향해 떠들 뿐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혹은 뉴미디어의 경제학이 출판의 정신적 추구, 총체성을 향한 노력을 방해하게 허락해서는 안된다.

**윤재준 | 중앙대 박사과정** | 감성적이고 주관적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웹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 우선 순위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웹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제작자의 주관적 판단과 감각을 바탕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익숙한 형태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

**김재운 | 탐라대 교수** | 디지털 시대 독서의 과정은 세가지로 나뉜다. ▲e-북은 독자중심으로 기획, 제작돼야 한다. 종이책의 기능을 넘

어서고 편집의 요소가 적절히 담겨 있어야 한다. 단말기 가격 대중화, 독자층 명료화 등이 필요하다. ▲독자는 e-북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 종이책과 e-북을 상호보완하는 독자자세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 독서의 개념과 위상은 기존의 것에서 더욱 확장돼야 한다.

**호시노 와타루 | 문화통신사 | 일본 온라인 서점** 가운데 이익을 내는 곳은 현재로선 없다. 그 이유는 시장이 예상만큼 확대되지 않았고, 불리한 도매구조도 문제다. DB 운영의 정확성도 떨어지는데, 절판도서의 재고유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오치아이 히로야스 | 일본출판문화국제교류회 사무국 차장** |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로 대표되는 국제 북페어는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로서가 아니라, 자국 문화홍보의 장이라는 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참가가 어려운 중소출판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김선남 | 원광대 교수** | 번역출판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취약하다. 번역을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는 편이며, 번역자 양성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중복 및 오역 출판문화, 출판사간 저작권 확보 과당경쟁, 특정한 분야와 수용자 및 국가에 치우친 번역 기획, 전문번역가 부족 및 낮은 번역료 등이 선결과제다.

**김승일 | 동아시아미래연구소장** | 동아시아 출판 협력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가 선결돼야 한다. ▲범동아시아 출판편집연구기관 설치 ▲신유통질서 및 자유시장 체제 확립을 위한 협의체 신설 ▲각국 실정에 맞는 저작권 로열티 조절 ▲각국 공식 상용한자 통일 ▲교육기관 설립 및 상호교류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 등이다. —정리·강성민 기자